

## 건축 분야 청년인력 해외진출 지원 전략

임현성 연구원, 주소현 연구원

### 요약

- 국내 건축시장 침체와 취업난 가중에 따른 대안으로 해외진출 가능성 모색
  - 건축전공 졸업생의 설계사무소 취업률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 하락으로 국내 건축 분야 침체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해외경제동향을 바탕으로 청년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 정책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건축 분야 청년인력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업무 제안
  - 건축 분야 청년인력의 해외취업 및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 전략 제시
  - 지속적이고 일원화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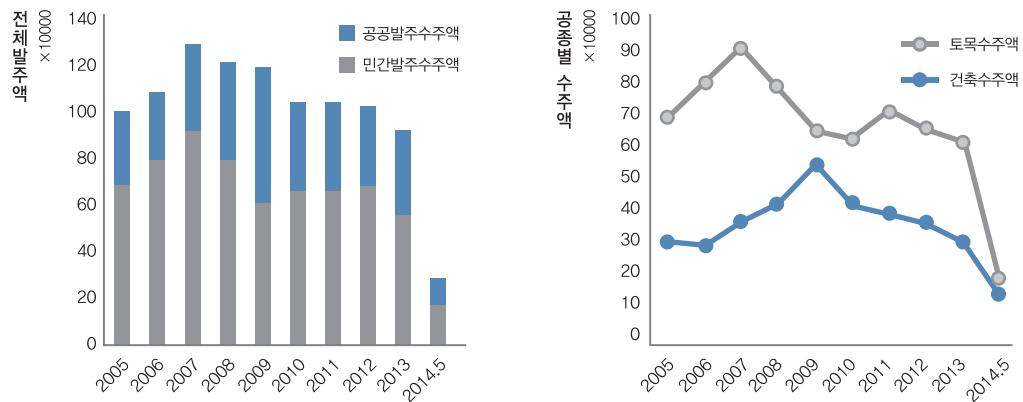
### 정책제안

- (중장기 추진 전략) 단기 '간접지원' – 중기 '직접지원' – 장기 '진출기반 확대' 전략
  - (단기) 관련 기관 간 업무공조 및 건축 분야 맞춤형 해외진출 정보를 제공
  - (중기) 해외진출에 관련한 각종 재정지원(「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9조) 및 해외진출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장기) 취업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관련 제도(건축학인증, 건축사자격제도)의 국제 상호인정 추진
- (전담기구)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진흥원 등 전담기구의 조속한 설립 또는 지정 필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6조)

## 1 건축설계 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의 필요성

### ■ 국내 건설 및 건축시장 침체와 관련 학과 졸업생의 취업난 가중

- 국내 건설 평균 수주액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국내 건설경기의 하락세가 예상되며, 공정별 수주액 중 건축공사는 타 분야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 또한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급여, 일자리 부족 등으로 건축전공 졸업생의 설계 사무소 취업률 급감



국내 건설 수주액 및 건축공사 수주액 추세

※ 출처: 월간 건설경제동향, 대한건설협회(2014. 5.)



국내 건축전공 졸업생 취업 현황

※ 출처: 건설경제신문(2014. 11. 14.)

## ■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해외진출 의사 확대 및 정책 지원 가능성 증대

- 2015년 4월 청년 해외취업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기회가 있으면 해외 취업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
- 질 높은 해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 지원 가능성 증대
  - 서비스 분야에서 IT, 엔지니어링 등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의 다양화 및 상시적인 해외취업을 지원 중<sup>1)</sup>

■ 연간 1만 명 해외취업: 2014년 5,000명 → 2017년 1만 명  
 고용노동부: 2014년 3,000명 → 2017년 7,500명  
 각 부처: 2017년까지 2,500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250명,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건설·플랜트: 1,100명 등】

- 세계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높음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0.9~2.9% 소폭의 성장률인 반면, 중국 및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은 6~7%을 전망<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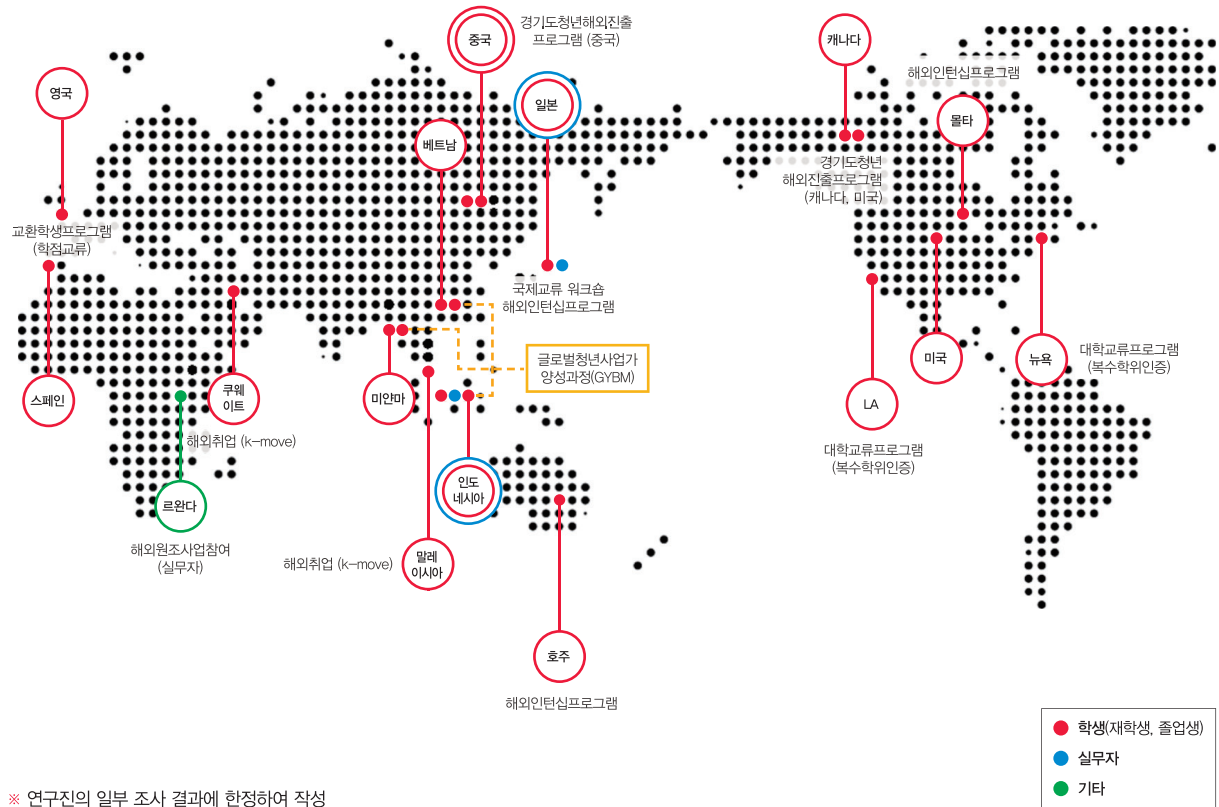
## 2 건축 분야 청년인력의 해외진출 현황 및 한계

### ■ 빈약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진출 기회 부족

- 유학을 제외하면 재학생·졸업생·실무자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하고, 현지에서 지속적인 취업이 보장되지 못함
- 특히 건축 분야는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중 일부이거나 국가 원조사업 일부에 그치고 있어 마땅한 지원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

1)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보도자료, 고용노동부(2015. 11. 27.)

2)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LGER리포트(2015. 4.)



## 건축 분야 청년인력 해외진출 유형 및 현황

건축 분야 청년인력(재학생 · 졸업생 · 실무자) 대상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구분	형태	주요 진출국	특징	대표 사례
재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미국, 영국, 스페인,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장기(6개월~18개월), 단기(2개월), 전공무관, 어학연수 및 현장실습	인천대학교 등
	대학 교류를 통한 학위 상호 인정	미국(IT, SUNY) 등	1+1 학위 인정, 유학기간 단축 및 학위 취득 후 해외 취업연계	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졸업생	국가지원 취업 프로그램	일본, 중국, 쿠웨이트 등	해외 직업공고 알선 해외진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K-MOVE 경기청년 해외진출사업
	민간 지원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시장 진출에 대한 청년진출지원사업의 일환	글로벌 청년사업가 발굴프로그램 (GYBM)
실무자 (전문가)	해외 파견	일본 등	일본 니켄세케이 (현재 교류체결 해지)	
	국가 원조사업 등	르완다, 인도네시아 등	ODA 프로그램 연계 6개월~1년	KO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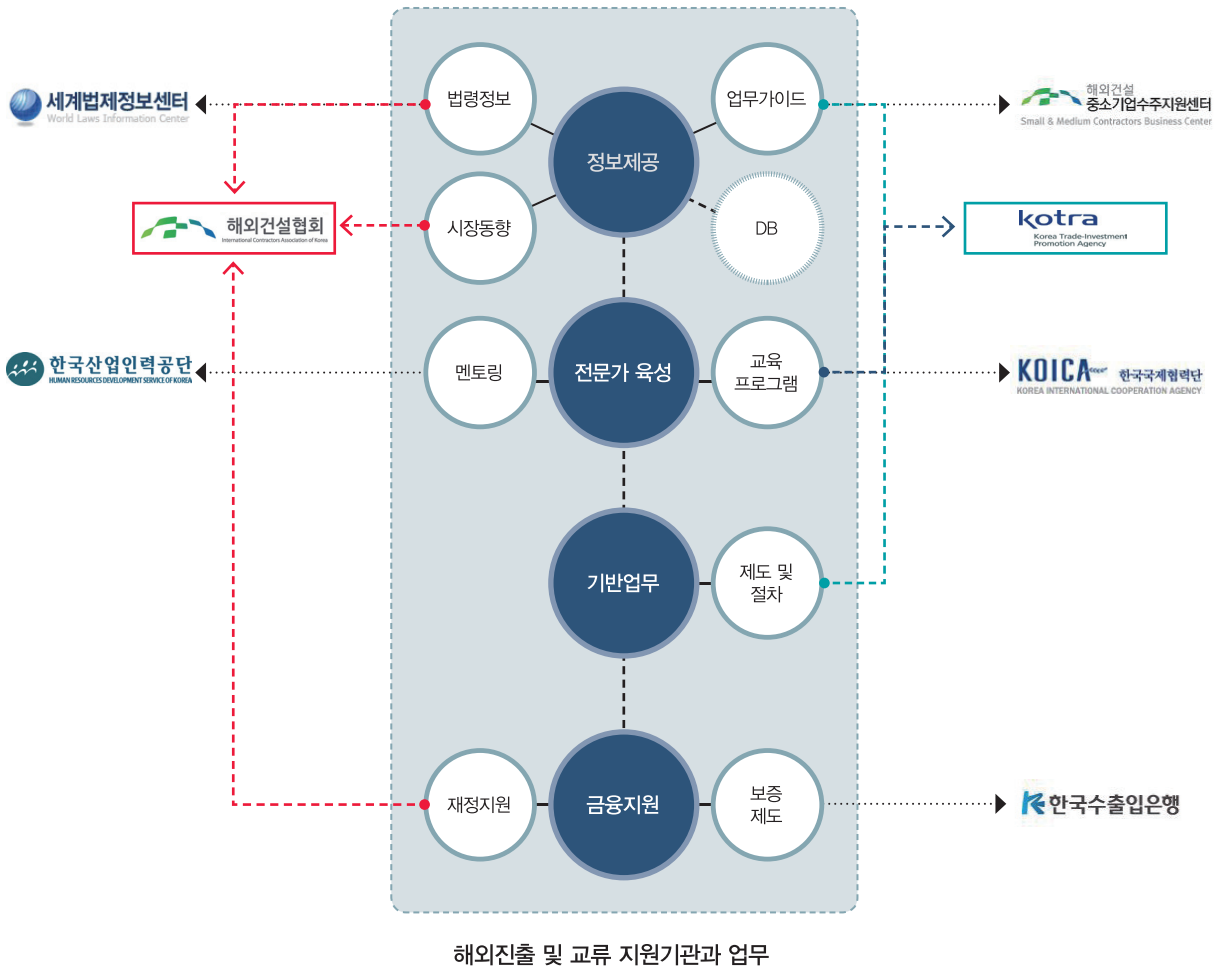
- 특히 졸업자 대상 해외진출 프로그램 경우, 진출 경로가 다양하지 않고 형식적인 구직 연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

건축 분야 전공 졸업자 대상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형태	사업명	추진 주체	특징	한계
국가 지원	K-MOVE	한국산업인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직업공고 알선</li> <li>• 해외진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설계 관련 분야의 취업 기회 미흡</li> <li>• 특정 기술(BIM, 구조설계 등) 보유 전문가 요구</li> <li>• 개인 진출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 미약</li> <li>• 해외진출 관련 체계적인 정보제공 부족</li> </ul>
지자체 지원	경기청년 해외진출사업	경기도 -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청년·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외취업 연수프로그램 이수 후 해당 국가의 기업체나 기관에 취업시키는 경기도 일자리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해외 취업 연계</li> <li>• 초기 운영단계로 다양한 진출경로 확보 부족</li> </ul>
민간 지원	글로벌 청년사업가 발굴프로그램 (GYBM)	대우세계경영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과정 프로그램</li> <li>• 6개월~1년 교육 후 해외취업 연계(기준자격 미달 시 탈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위주의 취업</li> <li>•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진출</li> <li>• 취업연계 계약기간 만료 후 개인 역량에 따라 지역 업체에서 계약 기간 연장여부 결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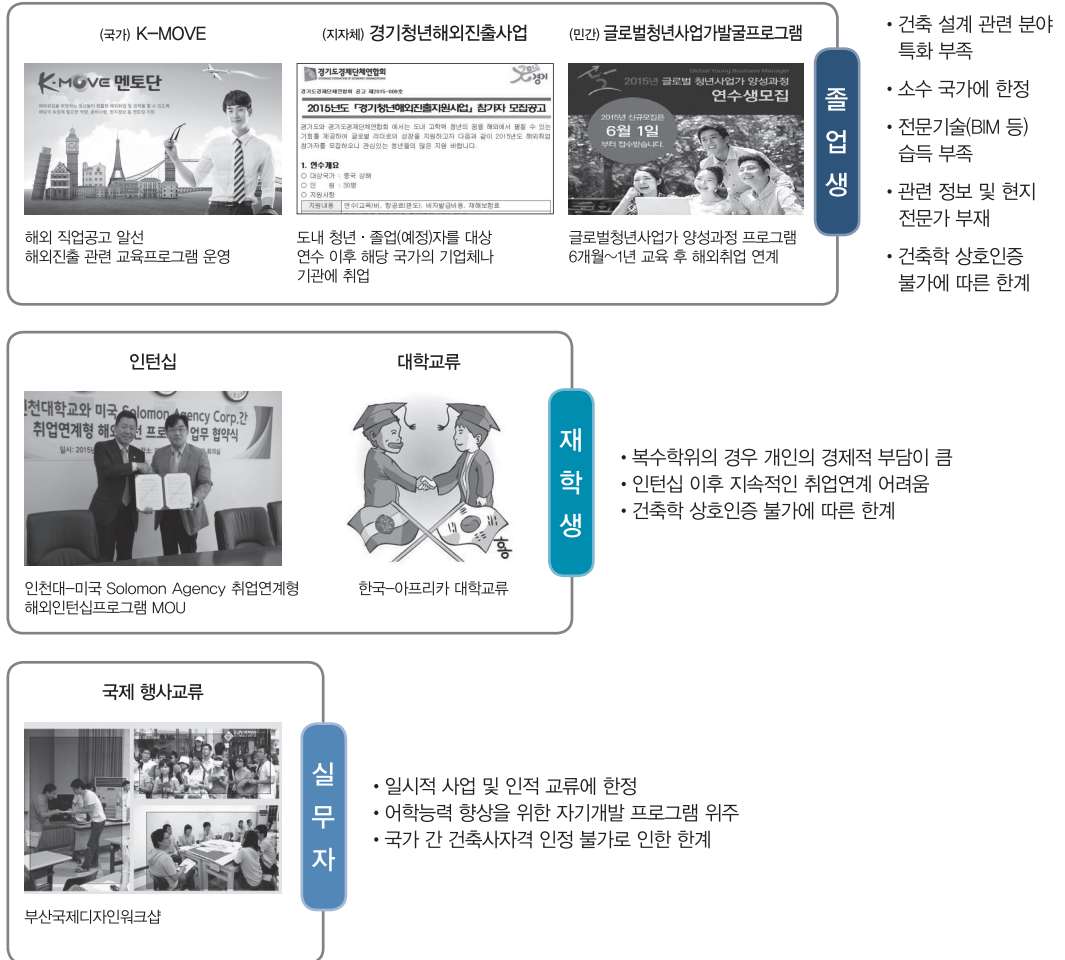
## ■ 건축 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정책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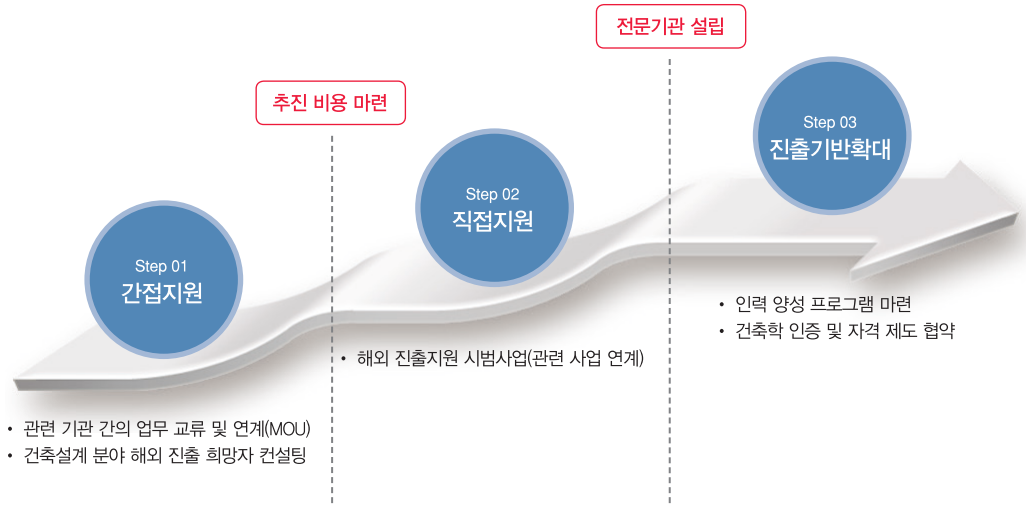
- 현재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한 해외진출 정책은 크게 법령 및 시장동향 제공, 업무 가이드 제공, 보증제도 및 재정지원 등으로 주로 업체의 진출 지원에 집중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일부 청년취업을 위한 멘토링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건축 분야에서의 지원은 부재



## ■ 해외진출 저해 요인과 한계

- 영어를 비롯한 현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이지만 언어 습득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 BIM, GIS 등 건축설계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 관련 역량의 습득 기회는 부족
- 건축설계 분야 관련 해외진출 정보 및 업체 등에 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고, 진출 노하우 등에 관한 컨설팅이 부재
- 국가 간 건축학인증 및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이 불가능한 제도적 걸림돌이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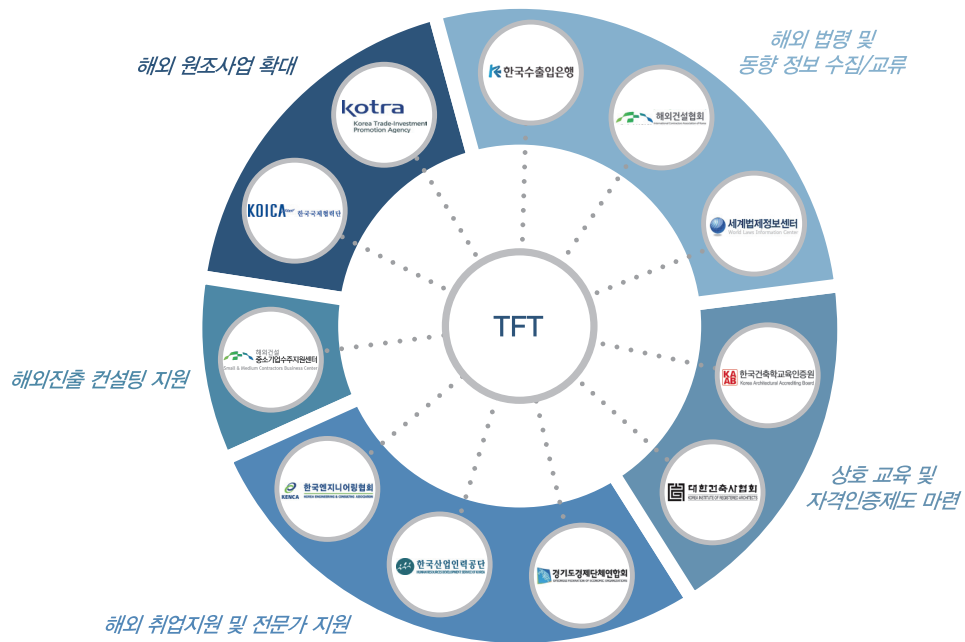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시기별 전략

## ■ 1단계 : 간접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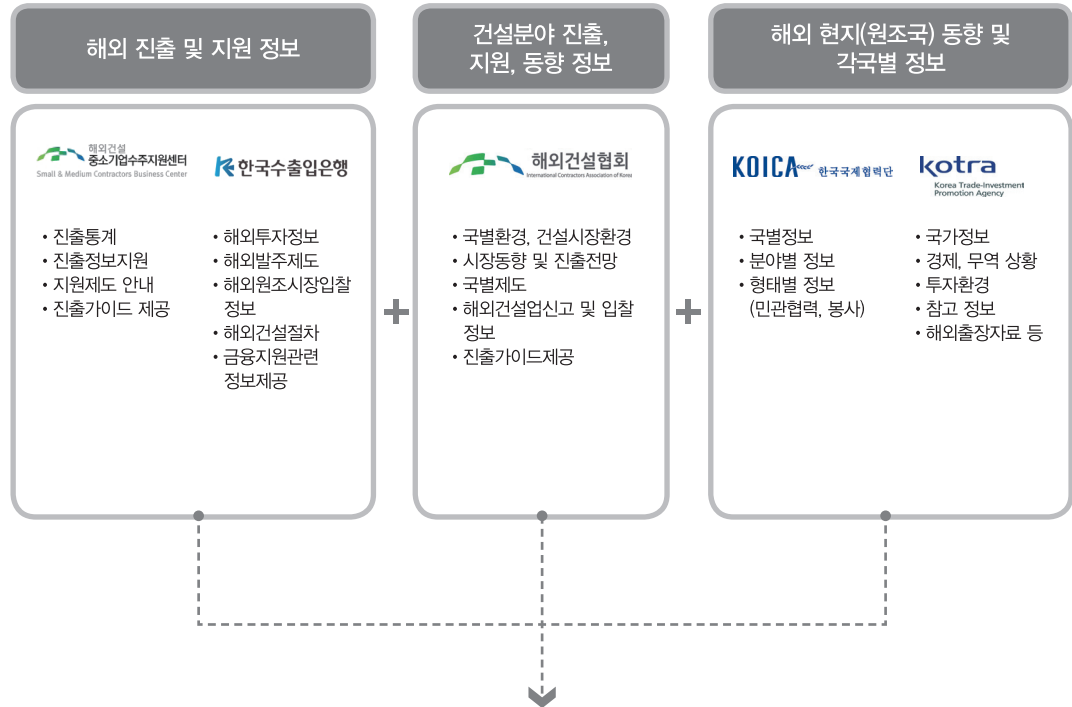
- 관련 기관 간의 업무 교류 및 연계(MOU)
  - 해외 동향 정보 제공, 원조사업 추진, 해외진출 컨설팅, 취업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국제 대학교육 및 자격인증 관련 산학연 TFT를 통한 업무 공조체계 마련





• 건축 분야에 적합한 해외진출 정보 제공

-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진출 지원 정보, 각국별 동향 정보, 진출가이드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제공



건축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정보로 정제/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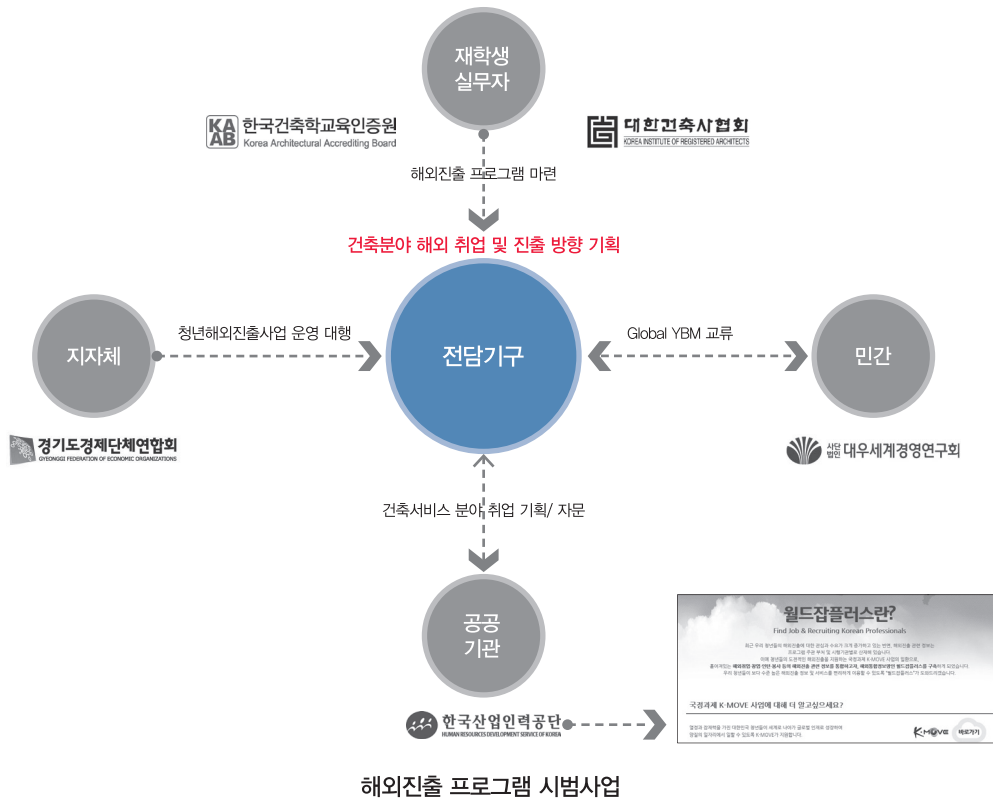


관련 기관의 해외진출 정보 제공 방안

■ 2단계 : 직접지원

•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

- 관련 민간기관 및 지자체 협조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K-MOVE(월드잡플러스)의 건축 세부사업을 대행하여 기획 · 추진



- 기존 ‘신진건축사-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범사업 확대 실시

### ■ 3단계 : 간접지원

- 전담기구를 통한 해외진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영어를 비롯한 국제계약, 해외제안서(Proposal) 작성 요령 등 건축 분야 전문교육 프로그램(ex. 엔지니어링 아카데미)을 신설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
  - 특정 기술(BIM 등)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해외진출 인력이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cf. 건설기술교육원 BIM 전문인력 양성, 한국BIM 전문교육원 건축BIM 등)
- 건축학인증에 대한 국제 상호인정 확대
  - 한국은 캔버라 어코드(Canberra Accord<sup>3)</sup>)에 가입되어 있으나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련의 검증과정(EESA)를 거쳐야 학위가 인정됨

3) 협정문에서는 본 협정에 참여한 기구의 인증·인준 제도가 규정하는 건축학 전문학위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인증한 건축학교육 자격에 대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기로 확정함.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http://www.kaab.or.kr/>)

- 따라서 캔버라 어코드 가입국에서의 검증과정뿐만 아니라 가입국이 아닌 개발도상국과의 학위 인정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
- 건축사 자격 제도의 국제 인정
  - 한미 FTA 이후 전문직 서비스업에 대한 단계적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축사 자격 제도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협의에 이르지 못함
  - 미국건축사등록원(NCARB)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건축사 자격 제도의 조속한 상호인정이 필요함
  - IT, 엔지니어링 등 청년 진출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호주 등 4개 국가와 자격상호인정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sup>4)</sup>

## 4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운영

### ■ 전담 지원기구의 설립 및 안정적 지원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정보 취합, 컨설팅, 교육, 기관 간 연계(MOU) 등 상시적인 업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해외진출을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해외진출 전담기구의 설립과 추진이 시급
  - 해외진출 및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률적으로 명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9조<sup>5)</sup>)되어 있어 조속한 시행 필요
  -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기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6조<sup>6)</sup>)으로 ‘건축

4)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보도자료, 고용노동부(2015. 11. 27.)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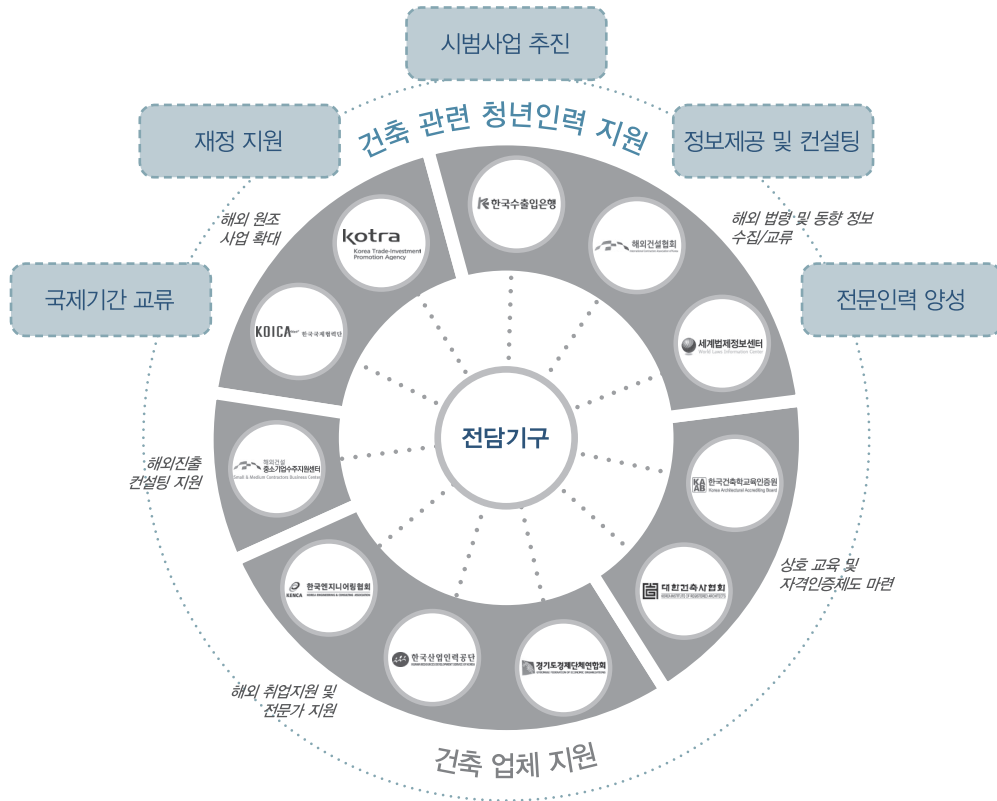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시행령 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건축진흥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4.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진흥원'의 설립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사 자격 교류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선책으로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기구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해외진출 전담기구 운영 방안

임현성 연구원 (044-417-9638, archilim@auri.re.kr)

주소현 연구원 (044-417-9851, shjoo@auri.re.kr)

